

# ‘멋진 아빠’에 ‘자랑스런 두딸’

화순 도곡파출소 문준선 소장 첫째·셋째 딸 경찰 입문 ‘3부녀 캡스’

아버지는 화순경찰서 도곡 파출소장. 큰 딸은 경기광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원. 큰 딸의 사위는 경기부천경찰 청문감사관실. 셋째 딸은 경찰간부후보생 58기. 광주 출신의 세 부녀(父女) 경찰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세 부녀(父女)나 쌍둥이 형제 등 경찰가족은 있었지만 아버지와 두 딸, 그리고 사위까지 혼연 경찰인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17일 화순경찰서 도곡파출소에서 문준선(55·화순군 화순읍) 경위를 만났다. 여성 2명이 밀집한 제복차림의 문 경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 뒤에 서 있는 여성들은 다른 아버지들이었다. 1남3녀를 둔 문 경위는 큰 딸과 셋째 딸이 자신과 같은 경찰의 길을 선택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큰 딸 선영(29·간부후보생 55기)씨는 경기광명경찰 지능범죄수사팀원. 경찰에 입문한 지 3년째인 선영씨는 광주의 ‘사건 1 번지’라고 불리는 전 광주북부경찰 출신답게 씩씩했지만, 지난해 결혼한 ‘새색시’다. 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먼저 경찰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선영씨는 아버지의 집에서 출산휴가 중이다.

선영씨의 남편 이길찬(30)씨는 경기부천 경찰 청문감사실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부부는 간부후보생 55기 동기로 경기부평경찰중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다. 호탕한 성격에 이끌려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셋째 딸 장원(25)씨는 다음달 25일 경기부평경찰중학교 입교를 앞둔 예비 경찰관이다.

선영씨와 달리 차분한 성격의 장원씨는 교사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경찰관의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를 때우는 자랑스럽게 여겼다.

고 경찰관의 길을 선택했다. 어렸을 때부터 인형 대신 아버지의 경찰 모자를 쓰며 놀았다고 자매들은 전했다. 장원씨의 꿈은 경찰 조직의 혁신 리더가 되는 것이다.

올해로 20년째인 문 경위는 몇 년 후면 정년이지만, 아쉬운 마음은 없다. 생활을 바쳐 민생지안에 훨씬 지역을 팔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군 생활 중인 막내아들 장우(20)씨도 경찰의 꿈이 있어, 어머니와 둘째 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경찰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딸 키우는 재미를 하나도 못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씩씩해야죠.” 선영씨 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제복에서 풍겼던 냄새를 맡으며 남몰래 경찰의 꿈을 키웠다.

특히 주말과 휴일 온 가족이 나들이 갈 시



문준선 화순경찰 도곡 파출소장 등 세 부녀가 17일 화순 도곡파출소에서 ‘우리 가족 최고’를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 원쪽부터 큰 딸 문선영 경위, 문준선 소장, 셋째 딸 문장원씨.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었다고 한다.

두 자매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며 “아버지가 지켜온 경찰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제자 성주행 초교 교사 집유·수강 명령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7일 교무실에서 제자를 성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4학년 박모(11)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증기자 ejkim@

## 조카 상습 성주행

### 40대 삼촌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7일 한 아파트에 사는 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주행한 A(41)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주행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자신의 모 아파트에 함께 사는 조카 B(10)군·동생(8) 등 2명을 성주행하고 거부하자 가슴과 배를 꽂집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전남합동청사 시공 행안부 과장 뇌물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행정안전부 과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시공회사로 선정된 건설사 세곳으로부터 2천 300만원을 받는 등 정부 청사 신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해 3천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광주에서 열린 ‘4·19 사적지 기념탑 제막식’에서 인순일 광주시교육감과 장갑수 광주보훈청장, 유태영 동구청장 등이 행사 직후 기념탑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 악덕 사채 1,400% ‘살인 이자’

## 조폭 낸 고리대금업자 4명 검거

광주지역 영세상인과 직장인들을 상대로 최고 연 1천400%의 ‘살인 이자’를 받아 쟁기 무등록 대부업체 등 고리대금업자 4명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0)씨와 광주 모자족폭력배 과모(26)씨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역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공범 이모(32)씨 등 2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0명에게 총 2억 5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300~1천 407%의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정하고서 상가 등을 들여 ‘법정이율에 맞춰 돈을 빌려 주겠다’는 내용이 적힌 불법 광고 전단을 돌려 영세 상인 등

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 동안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34)씨 등 7명에게 100만~250만원씩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49%)의 15배가 넘는 연 720%의 이자를 받아 1천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과씨는 상환기일을 어기 경우 하루에 2만원의 추가이자를 받아내고 피해자의 직장 또는 집에 찾아가 협박 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북구의장 선거 뒷돈

### 의원 부인 등 3명

### 항소심도 전원 실형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업무를 받았던 의원 부인과 구의회 전 의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은 또 동종 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여칠 전 낭성 2명이 금팔찌를 썼는데, 다음날 다시 찾아와 앞서 산 팔찌를 빼어버렸다’며 선금 20만 원을 내고 같은 팔찌를 주문했다는 내용은 광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 낭성들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남구 구동 김모(39)씨 협체의 B금은방에 침입해 금 7.5kg과 현금

1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과정에서 버린 옷과 복면, 흉기 등을 금은방 내에서 발견된 지문 26점을 확보했지만 범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동종 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여칠 전 낭성 2명이 금팔찌를 썼는데, 다음날 다시 찾아와 앞서 산 팔찌를 빼어버렸다’며 선금 20만 원을 내고 같은 팔찌를 주문했다는 내용은 광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 낭성들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남구 구동 김모(39)씨 협체의 B금은방에 침입해 금 7.5kg과 현금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4·19 숭고한 뜻 계승하자”

## 광주고 사적지 기념탑 제막 등 곳곳 기념행사

4·19 혁명 49주년을 맞아 광주에 ‘4·19 사적지 기념탑’이 건립되는 등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4·19 혁명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광주 동구 계립동 광주고 앞 4·19 민주주권에서 ‘4·19 사적지 기념탑’ 제막식을 갖고 혁명이 남긴 민주주의 정신을 기렸다.

이 기념탑은 4·19 혁명 3대 진원지로 꼽히는 광주에 4·19를 기리는 상

징물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4·19 혁명 기념사업위원회·희생자유족회·민주혁명회·혁명동지회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4·19 단체는 이날 제막식을 시작으로 주모제(18일)와 기념식(19일)을 갖고 혁명 정신 계승에 나설 예정이다.

4·19 혁명희생자유족회는 18일 오후 6시 광주공원 내 4·19 혁명기념탑 앞에서 주모제를 연다.

또 19일 오전 10시 광주공원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4·19 혁명 기념식’

에는 4·19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4·19 혁명 기념사업위원회·희생자유족회·민주혁명회·혁명동지회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최영길 4·19 혁명동지회 회장은 “4·19 단체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횃불이 된 4·19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0주년 행사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단체 통합 등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연대 간부 농성중 대한통운 차 치여 부상

회원연대 광주지부 한 간부가 농성 중 대한통운 차량에 치여졌다.

17일 낮 12시50분께 광주 남구 대한통운 앞길에서 ‘택배기사 복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회원연대 광주지부 간부 이모(54)씨가 이 회사

택배 차에 치였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엔 100여명의 조합원이 서 있었고 문제의 차는 영업을 위해 회사 안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다.

회원연대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

도록 회사 입구를 터쳤는데도 택배 차가 갑자기 조합원에게 돌진했다”고 주장했고, 대한통운 측은 “회원연대 조합원들이 배송 차량을 두드리고 분무액을 뿌리면서 운전자를 위협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택배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섬뜩한 여중생

## 장애 급우 학대 내용 블로그에 올려

### 학교측은 사건 축소·무마에만 급

광주의 한 중학교 여학생이 같은 학교의 장애학생을 학대한 내용

의 사진과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이 문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자 즉시 사과에 나섰고 문제를 블로그로 폐쇄 했지만 가해 학생과 학교 측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북구 모 중학교 2학년 P(15)양은 인터넷 블로그에 지적장애 학생을 학대하는 사진과 함께

심한 육설과 경멸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한 친구가 주먹을 들어 장애학생을 때릴 듯한 모습과 장애학생 코에 허기가 끊혀 있는 모습,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웃거나 방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가해 학생은 블로그에 ‘내 친구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서 울렸다. 때가 끼어 목이 걸고 비듬도 더럽다’라는 글도 올렸다.

학교 측은 인터넷상에 문제 사진이 떠돌면서 학생이 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나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14일과 16일 이를 통해 홈페이지에 학생부장과 교장 명의로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계획 등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학년 초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일어난 ‘작은 갈등’으로 인터넷상에서 보인 집단폭행이나 패밀리은 없었다”며 “가해 학생은 정신상 담당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부부싸움 핫김 방화 8명 부상

○…광주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은 남편이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우던 담배를 이불에 던지는 바람에 불이나 8명이 부상.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8)씨는 지난 16일 밤 10시8분께 광주 동구 계립동 3층짜리 원룸 1층 자신의 집에서 부인(29)과 담배를 하던 중 불을 내 이불 위에 사는 대학생 K(25)씨 등 원룸 입주자 8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